

## 구멍 튜브

박시은

추운 겨울 얼음 바다 깊이 빠져 허우적거린다.  
반은 포기한 상태 하나의 구멍 튜브가 희미하게 보인다.  
약간의 희망을 갖고 헤엄치기 시작한다.  
“푸하!” 차갑고 어둡던 얼음 바다에서 힘겹게 빠져나왔다.  
‘모든 것이 차갑고 슬픈 얼음 바다’ 속에서 어둠이 걷히고 빛이 올라온다.

한여름, 덥고 수분이 많이 필요할 때  
나는 혼자 겨울이라는 계절 속에 갇혀 있었다.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 학교에서 왕따, 따돌림을 당하고 있던 난  
정말이지 얼음 바다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괴롭혀 보았지만 변하는 건 없었다.

너무 힘들었고 버틸 수 없어 엄마께 말씀드렸다.  
학폭위를 열고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증거가 나왔다.

내가 친구라고 믿었던 아이가 바로 날 괴롭히던 배후였다.  
그 아이에게 “날 왜 힘들게 했어?” 물어보니  
“이유? 이유 없는데, 그냥 재미있어서?”

그 후 나는 도망치듯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학교에서는 밝은 척을 했다. 부모님께선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다.  
나는 구멍 튜브를 타고 점점 더 빛과 가까워지려 시도를 하고 있었다.

구멍 튜브는 날 위해 최선을 다해 주고 있다.

엄마께선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위로를 해 주시곤 하셨다.  
바람 불듯 스쳐 지나가는 말이라고 생각하셨을지 몰라도  
나에겐 그 당시의 유일한 희망이고 빛이었기에 너무 감사하다.

난 이제 무슨 일이든 견뎌 낼 수 있는 힘이 있다.  
내게는 빛으로 데려다줄 구멍 튜브가 있으니까.  
넓은 얼음 바다에서 따뜻한 곳으로 데려다주는 구멍 튜브  
그리고 언제나 고마운 구멍 튜브.